



레미콘 産業動向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기획조사부

1. 概況

2. 레미콘 業体動向

3. 全國레미콘 需給實績 및 分析

4. 地域別레미콘 産業動向 및 展望

5. 原資材 産業動向 分析

6. 89年度 下半期 綜合需給 展望

1. 概 況

89년 상반기중의 레미콘산업은 생산시설, 출하실적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분석한 결과 작년 올림픽 특수(特需)에 이어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국내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고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주택, APT, 오피스텔등의 민간 건설공사에 많은 물량의 레미콘이 납품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 1~7월중의 전국 레미콘 총 출하실적은 2,561만 2,041㎥로 작년동기대비(昨年同期對比) 11.98%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4개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인 23.08%에는 미치지 못하나 작년 상반기중에 올림픽 관련공사로 물량이 다소 증가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나타난 레미콘 산업의 특징을 꼽을수 있다면 첫째, 지방업체 및 공장의 신·증설 확산 둘째, 관수부문 물량의 퇴조 및 민수부문 물량의 신장 셋째, 업계내의 레미콘 트럭 불하(拂下)도급제 및 매주 일요일 휴무제의 확산등을 들 수 있겠다.

2. 레미콘 業體 動向

1) 業體 및 工場 現況

레미콘 업체는 우리나라 레미콘 산업이 본래도에 오르기 시작한 1983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업체씩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 주목할만한 것은 대도시 및 그주변에의 공장 신·증설이 억제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적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던 공장 분포가 광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년에도 7월말 현재 출하가 되고있는 공장을 기준으로 벌써 19개 업체 21개 공장이 신설 또는 증설되어 총 163개 업체 254개 공장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레미콘 산업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신·증설의 급증에 따라 과당 경쟁, 가동률 저하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일산·분당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장증설이 다소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금년말까지는 전국적으로 30여개 업체와 50여개의 공장이 새로이 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업체 중에서는 (주)중원레미콘이 광양제철소내 집중출하(7월현재 161.835㎥)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7월현재 전국 업체변동 및 신·증설 업체 현황은 <표1> <표2>와 같다.

<표1> 전국 레미콘 생산업체 및 공장수 현황

구분 지역	업 체 수			공 장 수		
	88. 12	89. 7	변동수	88. 12	89. 7	변동수
서울·경인	38	40	2	64	65	1
강 원	12	16	4	20	23	3
충 북	13	14	1	13	15	2
대전·충남	17	20	3	23	28	5
전 북	8	9	1	12	13	1
광주·전남	18	21	3	23	26	3
대 구	8	10	2	8	11	3
경 북	25	27	2	28	30	2
부 산	7	7	-	8	8	-
경 남	25	26	1	28	29	1
제 주	6	6	-	6	6	-
계	144	163	19	233	254	21

註) 1. 합계란의 업체수는 지역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신규업체수와 달리 업체 및 공장의 변동수에 차이가 있는것은 회사합병 1개, 별도법인 공장 1개, 기존업체의 공장폐쇄 4개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2> 89년 1-7월중 신·증설 업체 및 공장현황

지 역	업 체 명	공 장 명	비고
서울·경인	(주) 대 아 레 미 콘 도 원 산 업 (주)	화 성 안 성	
강 원	(주) 삼 양 레 미 콘 (주) 문 창 콘 크 리 트 강 화 기 업 (주) (주) 영 동 레 미 콘 (주) 정 선 레 미 콘	명 주 고 성 원 주 삼 척 임 계	*
충 북	우 진 레 미 콘 (주) (합) 한 일 레 미 콘	청 원 단 양	*
대전·충남	(주) 호 서 레 미 콘 (주) 중 부 레 미 콘 한 용 산 업 (주) (주) 한 국 레 미 콘 한 일 흥 업 (주)	홍 성 대 전 논 산 아 산 서 천	* *
전 북	제 일 콘 크 리 트 (주)	완 주	
광주·전남	(주) 중 원 레 미 콘 (주) 신 한 산 업 (주) 신 아	동 광 양 담 양 합 평	
대 구	(주) 곰 레 미 콘 (주) 남 경 레 미 콘 (주) 제 일 레 미 콘	북 구 북 구 성 서	* *
경 북	(주) 현 대 레 미 콘 한 성 레 미 콘 (주) (주) 경 북 실 업	영 주 경 산 달 성	
부 산	-		
경 남	동 명 레 미 콘 (주)	울 주	
제 주	-		

註) 1. 비고란의 *표시는 기존업체 공장증설임
2. (주)영동레미콘은 舊 (주)성도레미콘 삼척공장임

2) 生産能力 및 運送能力 現況

89년도 7월말 현재 전국업체의 연간 레미콘 생산능력은 가동일 250일을 기준으로 할때 8,592만8천㎥로 작년보다 761만㎥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충남, 전남지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부산과 제주지역은 작

년과 변동이 없었다.

또한 레미콘 트럭 보유대수는 총 6,874대로 작년말보다 285대가 증가 되었으며 하루 4회전 연간 250일을 기준으로 할때 연간 레미콘 운반능력이 4,124만4천㎥로 나타나 레미콘 생산능력의 4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따라 성수기(盛需期)에는 레미콘 트럭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급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레미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레미콘 트럭의 증가 및 도심지 공사에의 적기공급을 위해 레미콘 트럭의 통행제한구역 완화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3> 연간 레미콘 생산능력 및 레미콘트럭 보유현황

지 역	생산능력(천㎥/년)	R/T보유대수
서울·경인	32,180	3,311
강 원	5,220	262
충 북	3,920	286
대전·충남	8,208	499
전 북	3,298	226
광주·전남	7,870	514
대 구	5,000	300
경 북	7,424	419
부 산	2,980	343
경 남	8,208	641
제 주	1,620	73
계	85,928	6,874

註) 1. 위의 수치는 89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한것임
2. 연간 생산능력은 하루 8시간×250일 기준임

3) K·S 取得 現況

89년 8월말 현재 전국 254개 공장중에서 233개 공장이 K·S표시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전국적인 취득률은 약 92%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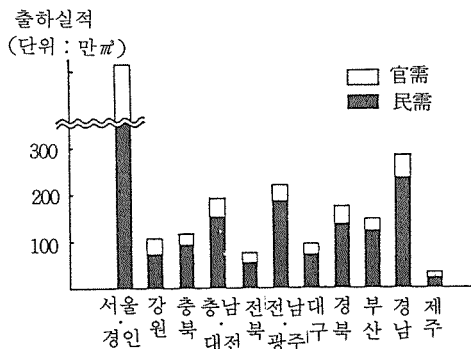
특히 금년에 들어서는 경북 영덕군 소재의 동아레미콘(대표 : 이세창)의 31개 공장에서 K·S 표시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경인2, 강원7, 충북2, 대전·충남4, 광주·전남5, 대구·경북8, 부산·경남2, 제주1개의 분포를 나타냈다.

따라서 금년 8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K·S미취득 공장은 21개 공장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 중 충남·북 지역내의 8개공장이 K·S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저조한 취득률을 보이고 있다.

3. 全國 레미콘 需給實績 統計 및 分析

1) 全國 레미콘 出荷實績 分析

■ 금년 7월말 현재 전국 레미콘 출하실적은 2,561만 2,041㎡로 작년동기 대비 11.98%의 증가를 시현하였으며 이 가운데 서울·경인 지역이 1,133만 8,929㎡로 44.27%의 점유비를 나타내었다.



(그림1) 89년 1~7월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

■ 금년도 1~7월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민간 건설 공사가 대단히 활발했던 관계로 민수(민需)부분은 2,071만 2,784㎡로 작년동기 대비 19.65%의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나 관수(官需)부분은 오히려 11.89% 감소하였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에서 이러한 관수물량 감소현상이 최근 5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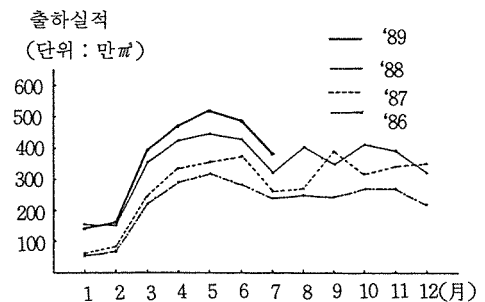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7월말을 기준으로 할때 강원·

충북지역이 작년보다 각각 55.4%와 41.9%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 하였으나 대구, 부산지역은 레미콘 물량이 15%정도 현격하게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볼때 충청 이북지역이 작년보다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표4> 지역별 작년 同期對比 출하실적 增減率 (단위 : ㎡)

구분 지역	88년 1~7월	89년 1~7월	증감율(%)
서울·경인	10,108,292	11,338,929	12. ²
강원	659,889	1,025,369	55. ⁴
충북	836,583	1,187,338	41. ⁹
대전·충남	1,716,084	1,902,561	10. ⁹
전북	762,909	728,433	▼4. ⁵
광주·전남	1,664,328	2,209,435	32. ⁸
대구	1,073,392	901,988	▼16. ⁰
경북	1,507,847	1,745,124	15. ⁷
부산	1,657,423	1,406,807	▼15. ¹
경남	2,599,875	2,847,944	9. ⁵
제주	285,231	318,113	11. ⁵
계	22,871,853	25,612,041	11. ⁹⁸

■ 지난 4년간 월별 전국 출하현황을 살펴보면 <그림2>와 같다.



(그림2) 년도별 월별 레미콘 출하실적

보는바와 같이 88년도 상반기에 올림픽과 관련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하되어 89년도 상반기중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수개년간의 출하현황을 분석하여 볼때 연 23%

정도의 실질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 작년 8월에서 금년 7월까지의 1년간 우리나라 인구 1인당 레미콘 사용량은 1.04㎡로 일본의 1.38㎡보다는 다소 뒤떨어지나 미국(0.62㎡) 영국(0.37㎡)등 서구 선진국가 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1년간('88.8~'89.7) 우리나라 1개 공장당 월평균 출하실적은 15,732㎡로 일본의 2,558㎡과 미국의 1,167㎡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레미콘 산업이 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의 의존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 業體 및 工場別 出荷實績 分析

■ 업체별 전국 출하현황을 살펴보면 7월 현재 쌍용양회공업(주)가 전국 19개 공장에서 291만 7,930㎡를 출하하여 시장 점유율 11.39%로 작년과 같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작년에 4위에 그쳤던 동양시멘트(주)가 작년동기 대비 17.2%가 증가한 148만 9,373㎡를 기록하여 2위로 승급 뛰어 올랐다.

■ 쌍용, 동양, 한일, 아세아등 4개 시멘트 관련업체의 레미콘 총 출하량은 580만 7,919㎡로 전국 출하실적의 22.6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89년 1~7월 업체별 전국 출하실적 현황

순위	업체명	공장수	출하실적(㎡)	작년대비 증감율
1	쌍용	19	2,917,930	▼ 0.8
2	동양	13	1,489,373	17.2
3	진성	5	1,365,780	▼ 7.9
4	고려(산)	8	1,300,324	▼ 8.0
5	한일(시)	7	860,880	▼ 1.9
6	삼표	2	627,413	23.2
7	공영사	3	565,852	5.8
8	동아건설	4	551,016	▼ 9.1
9	아세아	5	539,736	▼ 16.6
10	한일공업	6	446,985	5.8

■ 1~7월 전국 공장별 출하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진성레미콘 교문리 공장이 490.472㎡ 부천 공장이 416.428㎡를 기록하여 나란히 1,2위를 고수하였다.

■ 지방 소재 공장으로는 쌍용양회공업(주) 창원공장이 263.686㎡ 부산산업(주)가 252.516㎡를 기록하여 작년과는 달리 지방 소재 공장의 부진 속에서도 10위권 내에 마크되었다.

<표6> 89년 1~7월 공장별 출하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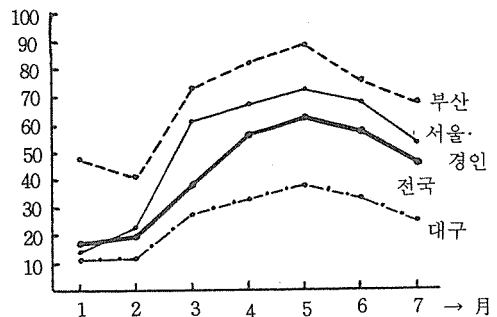
순위	업체명	공장명	출하실적(㎡)
1	진성	교문리	490.472
2	"	부천	416.328
3	삼표	성수동	377.225
4	경인실업	인천	336.204
5	아주산업	구로	315.120
6	아주(레)	망우	307.756
7	동양	안양	272.539
8	대립(콩)	안양	268.135
9	쌍용	창원	263.686
10	부산산업	부산	252.516

3) 稼働率 分析

■ 7월말 현재 전국 레미콘 업체의 월평균 가동률은 43.2%로 작년의 44.29% 수준을 약간 밑돌고 있으며 월별로는 예년과 같이 5월달에 61.28%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 지역별로는 작년에 80.72%의 경이적인 가동률을 기록했던 부산지역이 금년 7월 현재

가동율(%)



(그림3) 89년 1~7월중 지역별 가동률 곡선

67.44%로 많이 하락되었으나 여전히 금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대구 지역의 가동률이 큰폭으로 하락되어 작년에 비해 출하 물량이 많이 감소 되었음을 알수있다.

■ 공장 단위별 가동률을 살펴보면 쌍용양회공업(주) 포항공장이 108.1%의 기록적인 가동률을 기록 하였으며 (주)한국레미콘 천안공장도 101.22%의 높은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순위에서는 제외 되었지만 여천레미콘(주)가 출하량 90,959㎥에 107.8%의 가동률을 나타내어 관심을 끌고있다.

<표7> 89년 1~7월 공장별 가동률 현황

순위	업 체 명	공장명	가동률	출하실적(㎥)
1	쌍 용	포 항	108.1	136.185
2	한 국	천 안	101.2	127.541
3	진 성	수 원	97.1	163.107
4	천 마	서 울	95.7	200.861
5	동 아건설	창 원	95.4	106.839

- 註) 1. 출하실적 100,835㎥이상 공장 기준임
 2. 생산능력은 ㎥/hr×8시간×25일×7달로 산정하였음

4. 地域別 레미콘 産業動向 및 展望

<서울·경인>

(1) 出荷實績 分析

■ 서울·경인 지역내 40개 업체의 7월말 현재 총 출하실적은 1,133만 8,929㎥로 금액으로 환산하여 볼때 약 3천4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물량은 작년 대비 12.17%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며 전국 총 출하실적의 44.27%에 해당되고 있다.

■ 대·중소업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기업 14개사가 694만 9,737㎥고 중소기업 26개사가

438만9,192㎥로 대기업 對 중소기업의 비율은 61.3% : 38.7%로 나타났다.

■ 업체별로 볼때는 (주)진성레미콘이 1,365,780㎥로 쌍용양회공업(주)의 1,128,296㎥를 근소한 차로 앞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뒤는 작년과 같이 고려, 삼표, 공영사의 순으로 되어있다.

<표8> 서울·경인지역 업체별 출하현황

순위	업 체 명	공장수	89년 1~7월 출하실적(㎥)
1	진 성	5	1,365,780
2	쌍 용	7	1,218,296
3	고 려	5	861,398
4	삼 표	2	627,413
5	공 영 사	3	565,852
6	동 양	2	460,926
7	삼 안	2	440,784
8	선 일	2	427,456
9	아 주 (레)	2	413,181
10	한 일	2	358,962

■ 가동률을 살펴보면 천마콘크리트공업(주)가 95.7%를 기록하여 작년에 이어 1위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내 소재 5개 공장이 평균 68.6%의 가동률을 기록하여 성수기에는 공급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9> 서울·경기지역 업체별 가동률 현황

순위	업 체 명	가동률	89년 1~7월 출하실적(㎥)
1	천 마	95.7	200.861
2	진 성 (콘)	95.3	160.097
3	경 인 실 업	88.9	336.204
4	진 성	65.9	1,365.780
5	선 일	63.6	427.456

註) 출하실적 100,835㎥이상 공장 기준임

(2) 下半期 展望

■ 서울·경인 지역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주택 및 사무실 건축과 도로확장, 항만, 공단조성, 상·하수도공사에의 레미콘 출하가 계

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군포, 화성, 안성지구 개발 및 서울 지하철 연장, 8만 가구의 영구 임대주택 건설, 일산·분당의 신도시 건설 등이 주요 好材로 등장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8만~9만 5천㎡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레미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증가율을 예상하여 보면 서울·경인 지역의 레미콘 시장 규모가 워낙 방대한 관계로 최근 4개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인 13.84%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020만㎡ 정도의 출하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1) 出荷實績 分析

■ 강원도내 16개 레미콘 업체는 금년들어 APT 신축분 및 토목공사의 물량 증가에 편승하여 총 102만5,369㎡의 레미콘을 출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신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가동률은 여전히 28.72%수준에 머물러 작년까지 강원도내 건설공사가 상당히 부진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반기중 1개공장당 월 평균 출하실적도 6,658㎡로 전국 최저를 기록해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2) 下半年 展望

■ 하반기에도 강원도내 업체들은 도로 포장공사와 APT신축, 中島관광지 개발, 춘천-대구간 중앙 고속도로 공사등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호조로 레미콘 물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 레미콘 공급능력은 현재의 가동률을 고려할때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북도>

(1) 出荷實績 分析

■ 충북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상반기중

APT신축의 상당수 증가 및 골프장 건설등 민간 건설경기의 상승과 더불어 지역 개발 사업등이 집중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레미콘 출하실적이 7월말 현재 작년 동기대비 41.9%의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다.

■ 특히 청주시와 충주시내에 소비된 물량이 전체 출하량의 65%(잠정치)에 달해 이 지역의 건설공사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下半年 展望

■ 하반기에 들어서는 충청북도내 관수 물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또한 민간 공사의 발주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레미콘 출하량 역시 상반기와 같은 신장세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충남>

(1) 出荷實績 分析

■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내의 레미콘 업체는 도내 지역 개발 사업의 지속적 추진, 서해안 개발, 공단 조성사업, 대전시내 지하도 건설 등으로 경기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반기내 1,033,483㎡의 출하실적을 기록했다.

■ 이중 대전시내 9개 업체의 총 출하량은 869,078㎡에 달하였으나 평균 가동률이 33.92%에 머물러 전국 평균치인 43.2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나타냈다.

(2) 下半年 展望

■ 하반기에도 충청남도내 업체들은 금강 지역 개발, 공단조성, 지하도 건설의 계속에 따라 레미콘 출하도 꾸준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작년에 비해 10% 이상의 출하량 증가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1) 出荷實績 分析

■ 전북도내 9개 업체의 7월말 현재 총 출하실적은 728,433㎡로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출하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7월 대비 4.52%가 감소된 물량으로 레미콘 시장이 상

당히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적으로 보면 군산 지역이 APT, 주택 건설이 활발하여 레미콘 수요가 급증한 반면 이리, 익산, 김제 지역등의 물량은 대폭 감소되었다.

(2) 下半年 展望

■ 금년 하반기에도 전북 지역에는 뚜렷한 好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평년작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 그러나 전북 지역은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안 개발사업 및 군산항 개발, 공단 조성사업, 群·長산업기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project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이후의 장기적인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겠다.

<광주·전남>

(1) 出荷實績 分析

■ 광주·전남 지역의 레미콘 산업은 최근 4~5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금년 상반기(1~7월)에도 21개 업체 26개 공장에서 총 1,854.997㎥의 실적을 올려 작년 동기대비 32.7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평균 가동률은 40.1%를 마크했다.

■ 상반기내에 레미콘 물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광주시내의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주택공사등의 증가와 여천, 광양 등지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여천 및 동광양시 부근의 7개 업체는 작년 7월대비 약 98%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총 1,042.059㎥의 레미콘을 출하하였으며 평균 가동률은 65.3%를 나타내었다.

(2) 下半年 展望

■ 광주, 전남 지역은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영산강 종합 치수사업 및 서해안 개발에 관련된 대규모 사업과 도로확장, 여천 공단공사, 광양 제철소 3,4호기 건설사업등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레미콘 산업의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1) 出荷實績 分析

■ 89년도 1~7월중 대구지역 소재 11개 레미콘 업체는 APT건설 등 민간 건설부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출하량은 작년보다 19% 감소된 901.988㎥를 기록했다.

■ 최근 4~5년간 대구지역은 연 25%이상의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던 관계로 금년 상반기의 레미콘 물량 감소는 상당히 의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그원인은 금년도 관수 물량의 발주가 상반기에 매우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경북도내 27개 업체는 도로포장 등 관수부문 물량의 증가로 작년 7월과 비교하여 15.74%의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총 매출물량은 174만5.124㎥로 집계 되었다.

■ 특히 포항제철 관련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포항·영일 지역의 4개 공장은 작년에 이어 레미콘 물량증가가 지속되었으며 평균 가동률이 70%선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2) 下半年 展望

■ 하반기에 들어 대구지역은 APT, 호텔 등의 민간 건설-부문에 레미콘 출하가 계속되고 또한 상반기에 부진했던 관수부문 레미콘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상북도 지역은 주택건설 호조와 낙동강 연안개발 이외에도 도로포장 공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레미콘 출하량도 작년에 비해 10% 이상의 증가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경남>

(1) 出荷實績 分析

■ 부산지역은 최근 수년간 뚜렷한 신장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주택건축, 도로사업 등이 상당수 시행되었으나 전반적인 레미콘 출하량은 작년보다 15% 이상 감소하였다.

■ 그 원인으로는 관급물량의 지속적 감소 이외에 작년과 달리 전년도 이월물량이 거의 없

었고 또한 업체의 매주 휴무제 확산, 공사 현장 인부사정 악화 등을 들수 있겠다.

■ 그러나 전반적인 물량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내 7개업체의 올 7월까지 평균 가동률은 67.44%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공장 부지확보 및 허가 문제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최근 4~5년간 공장 증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부산과 달리 경상남도 지역의 레미콘 경기는 4~5년간 연 평균 40% 정도의 놀라운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작년대비 9.5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 특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울산, 창원지역의 레미콘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성수기에 공급난을 겪기도 하였으며 부산 근교의 김해, 양산, 거제 지역도 상당한 신장세를 기록했다.

(2) 下半年 展望

■ 부산지역은 하반기에 임해공단 조성사업, 제2고속도로 공사와 오피스텔 및 APT 신축공사에 많은 레미콘이 출하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계획사업이 나타나지 않고있어 전체적인 출하실적은 작년 수준을 약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 경남지역은 상반기와 달리 울산, 창원 지역에서 APT, 주택, 오피스텔 등으로의 레미콘 출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나 도내의 전반적인 레미콘 경기는 뚜렷한 물량증가의 요인이 없는 관계로 예년보다 다소 둔화될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작년대비 10%의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1) 出荷實績 分析

■ 제주지역은 상반기중 호텔, 상가건축공사가동이 활발하여 레미콘 출하실적이 작년 동기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下半年 展望

■ 하반기에는 오피스텔 등의 건축공사 부문

에 많은 물량의 레미콘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5. 源資材 産業動向 分析

1) CEMENT 産業

시멘트 수요는 최근 3개년간 연 평균 11%의 성장율을 기록했으나 금년에 들어서는 예상 이외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7월현재 시멘트 총 내수량(內需量)은 15,182,688톤 정도로 작년 동기에 비해 4.48%의 증가를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이중 레미콘 제조에 소비된 양은 약 815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시멘트의 레미콘 전환률(轉換率)은 약 53.7%정도로 볼수 있으며 이는 이웃 일본(69%), 미국(64%)보다는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의 수급상태는 작년 하반기의 파동과는 달리 상당히 원활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격은 벌크 시멘트의 경우 톤당 40,430원 정도의 약 보합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중 시멘트 수요의 증가율이 둔화된 요인은 주로 관수물량의 대폭적 감소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15% 이상의 높은 성장을 달성했던 관계로 작년대비 성장률이 높지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상반기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하반기까지 총 2,740만톤 규모의 시멘트가 국내 소비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 骨材 産業

골재 수급문제는 금년 3,4월의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파동이 일기 시작하여 상반기중 최대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서울·경인 지역의 경우 주 공급원인 미사리 지역의 골재 부존량이 거의 바닥이나 파동이 심화 되었으며 골재 가격의 급등으로 레미콘 생

산원가가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하였다.

참고로 금년 6월중의 모래가격은 m^3 당 7천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8% 그리고 자갈은 #467 규격의 경우 m^3 당 6천300원으로 26%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적으로 레미콘 제조에 사용될 골재량은 5천900만 m^3 정도로써 증량으로 계산할때 9천500만t에 해당되는 양이며 이중 서울·경인 지역에서 2천600만 m^3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골재 수급 문제는 일산·분당의 신도시 건설에만도 약 2천400만 m^3 정도의 골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팔당댐 상류와 한강 하류등 새로운 골재 채취원의 확보 및 해사(海砂), 쇄석(碎石) 사용의 기술적 검토, 그리고 장기적인 종합 수급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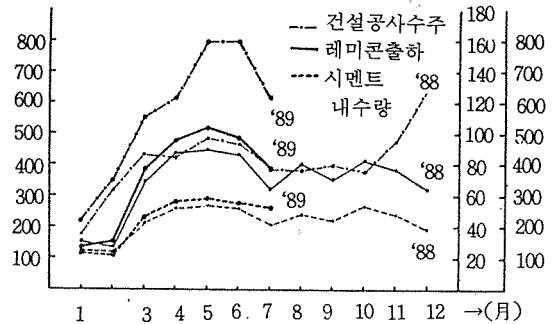
6. 下半年 綜合 需給 展望

레미콘 산업은 건설경기 및 시멘트 수급현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이들 산업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4>와 같다.

위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바와같이 레미콘 산업의 수급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4~5년간의 연평균 레미콘 출하 증가율(23.1%) 의

레미콘 출하실적
(단위 : 만 m^3)

건설공사수주 시멘트내수량
(단위 : 백억원) (단위 : 만톤)



(그림4) 레미콘 출하 및 관련산업 동향

에도 건설수주 증가율(9.7%), 시멘트 소비 증가율(11%)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89년도 예상 경제성장률(6.8%), 상·하반기별 레미콘 출하비율(45.37% : 54.63%)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때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20%가량 신장된 2,600만 m^3 정도의 레미콘 출하가 예상되며 따라서 금년내에는 전국적으로 총 4,800만 m^3 내의 출하실적을 기록하여 작년대비 15%가량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처별로 살펴 볼때는 하반기에 들어서도 상반기와 같이 민간 부문에서는 상가, APT, 주택, 사옥신축 공사등으로의 레미콘 출하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며 공공 부문에서는 도로 포장 공사와 택지 조성공사, 그리고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사업등에 많은 물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10> 년도별 레미콘 출하실적 증감 및 89년 하반기 전망 (단위 : m^3)

구분 년도	상 반 기	전년 대비 증감율(%)	하 반 기	전년 대비 증감율(%)	전 국 총 계	전년 대비 증감율(%)
86	12,577,148	23.30	14,965,247	17.08	27,542,395	19.84
87	14,495,791	15.5	19,256,835	28.68	33,752,626	22.55
88	19,616,669	35.33	22,006,539	14.28	41,623,208	23.32
89	21,730,567	10.78	26,166,000 (예상)	18.90 (예상)	47,896,567 (예상)	15.07 (예상)